



의정부주보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홈페이지 www.uca.or.kr • 전화 031-850-1400(대표)

124위 복자

복자 권상문 세바스티아노 (1769-1802)



권상문(權相問) 세바스티아노는 한국 천주교회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양반 집안 출신이다. 교회 설립 주역인 권철신 암브로시오가 그의 큰아버지였고,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그의 아버지였다.

1769년 경기도 양근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부터 집안의 신앙을 이어받아 열심히 신자가 되었으며, 이웃에 사는 윤유일 바오로 등 교우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갖고 교리를 연구하였다.

1791년의 신해박해로 아버지가 순교하자 한때 교회를 멀리하였으나,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입국한 뒤 다시 신앙을 회복하였다. 1795년의 을묘박해로 주 야고보 신부가 피신 생활을 하게 되자, 그는 3일 동안 주 신부를 자신의 집에 유숙시키면서 교리를 배웠다.

1800년 양근에서 체포된 그는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증언하였다. 잠시 마음이 약해진 적도 있었지만 곧 잘못을 뉘우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결국 형조에서는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였고, 1802년 1월 30일(음력 1801년 12월 27일) 양근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33세였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연중 제15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17(16), 15 참조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흠족하리이다.

제1독서

이사 55, 10-11

화답송

시편 65(64), 10ㄱ-ㄴ, 10ㄹ-11, 12-13, 14(● 루카 8, 8)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

○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

○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

○ 목장들은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울리며 노래하나이다. ●

제2독서

로마 8, 18-2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복음

마태 13, 1-23 (또는 13, 1-9)

영성체송

시편 84(83), 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이미 책 전체의 예고편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1,8). 복음이 땅 끝에 이르면 사도행전이 끝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부분으로, 사도들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에 머물렀던 시기를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고는 문밖으로 나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유다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첫 신자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2,42).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설교를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자기 말로 알아들으면서 일치가 이루어졌듯이, 여기에서도 일치는 매우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4,32). 이러한 신자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습니다.

일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지구상에 인류가 살아온 햇수는 점점 쌓여가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도 이천 년이 더 지났는데, 전쟁의 소식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에서 많은 전쟁들은 이러저러한 구실들을 내세운다 해도 사실 경제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어리석어서 아직도 전쟁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계산이 밝아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까지 감수하는 것일까요. 이런 인간들 사이에서 일치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신자 공동체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찬과

기도에 전념하였다는 말은, 그들의 한마음 한뜻이 인간적 요인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레오 14세 교황님의 사목 표어가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박해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5,28). 7장에서는 첫 순교자인 스테파노의 죽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박해와 순교는 복음을 꺾지 못합니다. 스테파노의 순교 장면에서 있었던 사울이 장차 멀리까지 복음을 전할 사도가 되듯이, 박해는 오히려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합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8,1). 이후 교회의 역사에서 되풀이해서 나타날 모습입니다. 박해로 흩어진 신자들은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으니, 1장 8절의 말씀대로 “유다와 사마리아”로 증인들이 퍼져 나갑니다. 8장 끝부분에는 필리포스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 사야 예언서를 설명해 주며 그에게 세례를 주는 데까지 이르게 되지요.

저들이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5,39). 가말리엘이 최고 의회에서 한 말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지금도 세상 안에서 일치가 가능함을 증언한다는 사실은, 교회와 그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



교회의 종말론적 성격

「교회헌장」 제7장, 제48항 전반부

「교회헌장」 제7장은 “순례하는 교회의 종말론적 성격, 그리고 천상 교회와 그 일치”라는 긴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7장은 성 요한 23세 교황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중에 ‘성인 공경’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이 뜻을 이어받았고, 공의회의 제2회기가 끝난 후 신학위원회는 「교회헌장」의 초안에 “우리 소명의 종말론적 성격과 우리와 천상 교회의 일치에 관하여”라는 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때 언급된 종말의 개념은 개인 차원에 머무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3회기가 시작되고 공의회장에서 토론이 시작되자 개인보다는 교회 차원에서의 종말론적 성격이 대두되었고,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제목이 채택되었습니다. 중세 이후 종말론은 대부분 개인이나 집단의 운명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역사 안에서 순례하는 교회 자체가 종말론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교회헌장」 7장을 읽으면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7장의 첫 항인 제48항은 “교회는 ... 만물이 복원되어지는 시간이 올 때에 비로소 천상 영광 안에서 완성될 것”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로 불림을 받았고, 그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얻게 해준 교회는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것이고, 그뿐 아니라 세상도 인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에페 1,10; 콜로 1,20; 2베드 3,10 참조).

공의회는 이어서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 교회의 종말론적 성격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당신에게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당신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 당신 몸인 교회를 구원의 보편 성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에 계시면서도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어,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당신과 결합시키시며, 당신의 몸과 피로 기르시고 영광스러운 생명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현세의 삶도 배우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교회는 천상 영광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 _ 지상의 교회, 피렌체 대성당

따라서 종말이 ‘이미’ 다가왔으며 세상의 쇠신도 결정되어 이 현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상에서 참된 성덕으로 불완전하게나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순례하는 교회는 성사들과 제도들 안에서 현세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고통을 겪으며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피조물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가 완성에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법적으로 노예제도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이 온전히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까지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곁에서 함께 땀 흘려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이들입니다.

이미 한국 산업은 이주노동자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취업실태조사에 따르면 농림·축산업 종사자의 약 10%, 작물재배업의 65%, 광업과 제조업 등 2차 산업 종사자의 절반가량이 이주노동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구성원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금 체불, 폭행, 부적절한 주거 환경 같은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노동계에서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직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없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과 제도가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1997년 영화 <아미스타드(Amistad)>는 1839년 스페인 노예선 ‘라 아미스타드 호’에서 실제로 일어난 반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는 자유를 향해 사투를 벌인 아프리카인들의 법정 투쟁을 통해, 노예제도의 비인간성과 인간 존엄의 가치를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특히 베냉계 미국인 배

우 자이먼 혼수가 온 힘을 다해 외치던 한마디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Give us free!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오!)”

성경 역시 인간을 억압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탈출기에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려고 그들 위에 부역 감독들을 세웠다 ...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고된 일과 온갖 들일 등, 모든 일을 혹독하게 시켜 그들의 삶을 쓰디쓰게 만들었다”(탈출 1,11-13).

탈출기는 단순히 먼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현실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자 외침입니다. 시대와 모습은 다를지라도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2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그들과 함께 건설해야 합니다. 그들이 없으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이주민과 난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는 그저 동정 어린 시선과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이웃이자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노동에 기댄 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그들의 권리와 존엄도 함께 지켜내야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오!”라는 외침이 더 이상 누군가의 처절한 절규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소명일 것입니다. ☸



교구
소식

제31회 농민주일 기념미사 및 직거래장터

일시 7/19(주일), 11시 미사 / 장터 09시~13시 장소 일산 성당
주례 이은형 총대리 신부 문의 031-850-1491 생태환경위원회

[전시] 2026 의정부가톨릭미술가회 신입회원전

일시 7/25(토)~8/7(금) 10:30~17:30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53번길 36)
문의 031-877-9153 ※ 공휴일, 월요일 휴무

한마음 사계 피정 - 8월, 9월(대침묵 피정)

	8월	9월
일시	8/21(금)~23(주일)	9/11(금)~13(주일)
강사	이승엽 미카엘 신부	이주형 세례자요한 신부
주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루카 11,2)	창세기를 통해 배우는 인생의 행복

피정비 1인 20만원 (1인 1실)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의집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신청 ▶



최대한 신부와 함께 하는 인문학 피정

일시 8/29(토) 15시~30(주일) 13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주제 내가 있다는 놀라움(시편 139) SF 소설과 경이로움의 체험
회비 9만원(1인 1실/교재 미포함) 선착순 40명 대상 누구나
교재 김보영 『고래눈이 내리다』 래빗홀, 2025 문의 031-850-1446 선교사목국

신청 ▶



제40차 의정부교구 약혼자주말

일시 9/4(금) 19시~6(주일) 16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대상 예비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문의 031-850-1459 가정사목부

신청 ▶



긴급
구호
모금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긴급구호 모금 캠페인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12537-04-008155 예금주: 사단법인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우리은행 1005-701-443328 예금주: (재)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우리은행 1005-785-119119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7/17(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4층 소성전
 주제: 한 말씀만 하소서
 강사: 김경희 루시아 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문의: 010-2127-0032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일시: 8/15(토) 11시~16(주일) 16시
 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회비: 9만원 (사전접수자만 피정가능)
 문의: 010-5490-5345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안내

성경완독: 7/24(금)~8/1(토), 8/14(금)~22(토)
 효소단식: 8/4(화)~7(금), 8/27(목)~30(주일)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 피정

장소: 경남 산청 성심원
 일반부(35세 이하 남성): 7/30~8/2 [3박4일]
 중고등부: 8/4~6 [2박3일, 캠프로 진행]
 문의: 010-6608-3217

3지구 매월 셋째(토) 무료 치유 피정

일시: 7/18(토) 11시~16시, 갈현동 성당 지하 강당
 내용: 말씀치유기도·찬양·미사·안수(점심 무료 제공)
 강사: 손동훈 신부(인천 장애인복지관 관장)
 문의: 010-2435-3737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 이시돌 목장에서 쉬고 함께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올레길,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공동체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9/1(화)~4(금),
 9/17(목)~19(토), 10/7(수)~10(토)
 비양도 포함: 7/24(금)~27(월),
 7/29(수)~31(금), 8/1(토)~4(화),
 8/8(토)~10(월), 8/14(금)~16(주일),
 8/21(금)~23(주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산들평화순례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마라도: 8/21(금)~23(주일) / 올레길: 9/17(목)~19(토)
 역새길: 10/14(수)~16(금)
 치유숲: 11/7(토)~9(월), 11/21(토)~23(월),
 12/4(금)~6(주일)
 추자도 성지순례: 9/4(금)~7(월), 9/11(금)~14(월),
 10/31(토)~11/3(화), 11/14(토)~17(화)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가정회복기도와 미사 (고해성사, 상담)

일시: 7/15(수) 13시~16:30 (말씀과 찬양을 통한 치유)
 장소: 정동프란치스코회관 (1,2호선 시청역)
 문의: 010-7282-2422(가족의 갈등과 화해)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 피정

일시: 9/3(목) 17시~6(주일) 15시
 장소: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집
 피정동반: 구정모 마르코 신부(예수회)
 피정비: 30만원 / 신청·문의: 064-739-0951
 주최: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신원동 성당 성령기도회

일시: 7/13(월) 10:40~12:20
 장소: 신원동 성당 교육관 2층
 강사: 김현우 바오로 신부(강의와 안수)
 문의: 010-7711-0903



교육 · 모 집 ▶▶

예수회센터 가을학기 현장 및 비대면 강좌 - 9월 개강

비블리오 드라마, 현장: 매주(월) 10시~12:30
 그리스도교와 불교간의 대화, 현장: 매주(화) 14시~16시
 인간이라는 신비, 현장: 매주(수) 14시~16시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13주 과정
 현장강좌: 수요반, 금요일 10시~12:30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 강좌:
 월요일, 목요일: 19:30~22시
 신청: 02-3276-7733, center.jesuit.kr

English prayer with Fr. Franco & Sr. Pat

일시: 1st, 3rd Friday 20:30~21:30
 대상: 20~45세 미혼 여성
 문의: 010-9353-1773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자비와 회복학교(온라인) 2학기 수강생 모집

(인터넷검색: 자비와 회복학교)
 일시: 9/3~12/10 매주(목) 21:30~22:30 [15주간]
 지도: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 (팔로티회)
 신청 및 문의: 010-8911-5957

(주)평화누리 장례지도사 교육원 교육생 모집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중심 장례지도사 양성 교육
 문의: 02-2258-8480, 8437

성가발성노래교실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일산 시스피나음악원: 매주(금) 10:30분
 문의: 010-9842-8818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송산 성당 성가대 지휘자 모집

주일 교중미사 및 주요 전례 성가 지휘
 평일(1회) 및 주일 미사 전 성가대 연습 지도
 문의: 031-853-2645 및 본당 홈페이지 참고

시스피나일산합창단원모집 - 혼성

그레고리오성가와 미사곡연주 및 봉사
 연습: 매주(화) 19시 고양아람누리(정발산)
 정기연주회: 12/2 고양아람누리 음악당
 문의: 010-9842-8818(남성 단원 환영)

서강대학교 제4기 부동산 & 금융아카데미 모집

내용: 금융투자/관리, 부동산투자/관리,
 세무 및 법무 등
 기간: 9/7(월)~12/28(월) / 16주
 시간: 매주(월) 19시~21:30
 장소: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101호
 접수: 6/8(월)~ 선착순 마감
 수강료: 3,500,000원
 문의: 02-705-8718 <https://scec.sogang.ac.kr>

2026년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채용

채용: 고객지원팀 팀원, 영양조리반 조리사
 업무: 사무행정 등(팀원), 단체급식 조리(조리사)
 마감: 7/24(금)까지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고

성 소 모 입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7/18(토) 14시	개화동 수도원(서울)	010-3800-1579
	사랑의 씨앗 수녀회	7/19(주일) 14시~17시	카라의 돌 (4호선 한성대입구역)	010-5528-3217

제29회 슈발리에 마음 축제

일시: 8/15(토)~17(월)

장소: 부산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본원

대상: 40세 이하 미혼 남녀

접수: 7/13(월) 선착순 / 회비: 10만원

신청: 010-2817-3101

안내 · 기타 ▶▶**늘푸른 자활의집 -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성인 남성 /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https://blog.naver.com/ggreen1004>**2026 살레시오 여름 성소 캠프**1차: 8/1(토)~2(주일), 고3~35세 이하 미혼남성,
대림동 살레시오 수도원2차: 8/15(토)~16(주일), 중1~고2 남학생
대전 살레시오교육사목센터

마감: 7/31(금)

문의: 010-6221-3520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사용장애 및 4대 중독 치료병원(입원 및 외래)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예수회후원회 해외 성지순례**8/12(수) 김대건, 최양업신부님과 안중근의사 발자취
(하얼빈, 장춘, 단둥, 차쿠, 대련-5일 180만원)

9/24(목)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69만원-추석연휴)

10/12(월) 발칸3국 및 메주고리에(10일 498만원)

10/26(월) 알프스주변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640만원)

11/13(금) 홍콩, 마카오(4일 18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나자렛투어 해외 성지순례

10/12(월) 튀르키예 일주 8일 T5 259만원

27년 2/22(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3일, QR, 449만원27년 5/3(월)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루르드)
12일, QR, 509만원27년 5/11(화)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루르드)
12일, EY, 499만원

본당 및 단체 단독 맞춤형 성지순례 전문

문의: 1577-7029 나자렛투어 고객센터

라파엘여행사 해외성지순례

10/13(화) 다낭 성모성지(5일, 165만원)

10/14(수) 유럽4국 성모발현지(12일, 560만)

10/19(월) 스페인남부, 포르투갈(12일, 519만원)

10/21(수) 메주고리에 순례(11일, 399만원)

10/28(수) 발칸, 메주고리에(11일, 495만원)

11/9(월) 알프스와 중부유럽수도원(12일, 570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7(월) 파티마 산티아고 도보 순례(12일)

9/8(화) 이탈리아 (전대사) 특별 순례(11일)

10/12(월) 체코, 독일, 폴란드, 헝가리(12일)

10/14(수) 프랑스, 이탈리아, 메주고리에(12일)

10/16(금) 산티아고 도보 순례(9일)

10/19(월) 튀르키예, 그리스(12일)

11/4(수)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12일)

문의: 02-319-2533 가톨릭회관 619호

※ 홈페이지 www.catholictravel.co.kr**성심여행사 성지순례**

10/14(수)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4일)

대한항공 탑승

10/2(금)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12일)

사도바오로의 행적 순례, 직항 이용, 페리 탑승

문의: 010-5909-5997 김명윤 베네딕도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9/2(수)~12(토) 발칸반도(535만원)

9/30(수)~10/3(토) 중국 상하이(180만원)

10/6(화)~9(금) 홍콩, 마카오(195만원)

10/7(수)~10(토) 일본 나가사키(175만원)

신청/문의: 02-2281-9070

**천주교의정부교구
카카오톡 채널**

성경이 들려주는 우리 삶의 의미

이 세상에서 별처럼

정남진 지음 | 224면 | 14,000원 | 바오로딸

문의: 031-850-1533 의정부 바오로딸

신/간/소/개

그리스도인이여, 그대의 품위를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우리 삶의 여정과 닮아 있습니다.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 나라'에 희망을 두고 인내롭게 걸어가는 하느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별처럼』은 구약성경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참된 의미를 찾아 참행복인 하느님 나라를 갈망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영적 체험을 하는 인간 존재가 아닌 인간 체험을 하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 자신의 고유한 품위를 깨달아 거룩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정부교구 WYD 상징물 순례 일정



지구 청년의 날

- 1지구 (8/22 - 오후): 평 내 성 당
- 2지구 (8/16 - 오후): 구 리 성 당
- 3지구 (8/1 - 오후): 호원동성당
- 4지구 (8/15 - 오후): pre-WYD
- 5지구 (8/2 - 오후): 행신동성당
- 6지구 (8/8 - 오후): 마두동성당
- 7지구 (8/9 - 오후): 일 산 성 당
- 8지구 (8/23 - 오후): 금 촌 성 당

8/4 (화) 화정동성당	8/3 (월) 도래울성당	8/2 (일) 신원동성당 행신동성당	8/1 (토) 청학성당 호원동성당	7/31 (금) 양주순교성지	7/30 (목) 신곡2동성당 민락동성당	7/29 (수) 주교좌성당 의정부1동성당
8/5 (수) 능곡성당 백석동성당						
8/6 (목) 정발산성당	8/7 (금) 중산성당 마두동성당	8/8 (토) 마두동성당	8/9 (일) 일산성당	8/10 (월) 탄현동성당	8/11 (화) 주엽동성당	8/12 (수) 가좌동성당 한마음청소년 수련원
						8/13 (목) 고읍동성당 덕계동성당
8/20 (목) 금곡성당 호평동성당	8/19 (수) 지금동성당 덕소성당	8/18 (화) 다산성당 별내성당	8/17 (월) 토평동성당	8/16 (일) 갈매동성당 구리성당	8/15 (토) 동두천성당 pre-WYD	8/14 (금) 양주2동성당 덕정성당
8/21 (금) 마석성당 창현성당						
		8/22 (토) 천마성당 평내성당	8/23 (일) 파주 EXODUS 금촌성당	8/24 (월) 목동동성당 운정성당	8/25 (화) 교하성당	8/26 (수) 참회와속죄의성당 대전교구 이동



천주교의정부교구
성모순례지

행주성당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성모봉소승진

주 임 신 부 : 김승한 요셉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 요 일	19:00	월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 일	09:00		화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상시, 사무실 문의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미사 후	수, 목, 금	19:00	축복예식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11:00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 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11일 베네딕토: 최광민
12일 베로니카: 최상미, 최하늘

공 지 / 단 체

- 본당 신부님 사제 연례 피정
본당 신부님께서 7월 14일(화)부터 21일(화)까지
교구 사제 연례 피정에 참석하십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7월 사목협의회의
일 시: 7월 12일 오늘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7월 연령회 월례회의
일 시: 7월 26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농민 주일 2차 헌금
다음 주일에는 농민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남성 레지오 사랑의 샘 단원 모집

본당 남성 레지오 사랑의 샘에서는 레지오에 관심
있는 남성 교우 분을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본당 사무실 혹은 단장님께 연락 바랍니다.
회합 시간: 주일 오전 7시 (추후 시간 변경)
연락처: 단장 이은혁 마태오 010-2284-6759

● WYD 의정부 교구 대회 홈스테이 가정 1차 모집

모집대상 : 의정부교구 내 신자 가정
활동기간 : 2027년 7/29(목) - 8/2(월) (4박5일)
(*세부 일정 추후 안내)
수용인원 : 가정별 동성 2명
주요역할 : ① 해외순례자 숙박 제공
② 아침식사 제공(기본)
③ 교구대회 및 본당 프로그램 참여 지원
④ 문화, 신앙 교류를 통한 환대 실천
신청기간 : 2026년 6/12(금) - 7/31(금)까지
신청방법 : '홈스테이 가정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 제출

- 이주사목위원회 난민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
본당 사순절 저금통으로 봉헌하여 주신 428,450원을
교구 이주사목위원회로 보내어 난민 기금 마련을
위해 후원하였습니다.

● 교무금, 주일

교 무 금 13건 1,000,000원
주일헌금 900,000원

교무금, 감사헌금	농협 217013-51-118905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	--

계좌 입금시 책정자의 이름으로 하시고 입금 후
본당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감사헌금

송해영 300,000원

화답송



(후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